

민주 당대표 후보들, 승부처 '호남 표심' 쟁탈전

송영길 "호남의 아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김진표 "경제 당대표... 황소 우직함으로 개혁 추진" 이해찬 "2020년 총선 승리... 강력한 단결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기호순)는 지난 4일 수도권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표심잡기 경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주말인 이날 광주와 담양, 전북 완주에서 차례로 열린 광주시당·전남도당·전북도당 대의원대회를 찾아 이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열린 연설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광주시당 대의원대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불꽃더위에 도 불구하고 1,000석 규모의 행사장이 당원들로 가득 차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에서 "광주는 민주당의 성지이자, 민주주의가 좌초할 때마다 용기를 준 땅"이라며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까우냐를 강조하지 말고, 누가 더 국민을 향한 책임감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포부와 비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반 판세가 이해찬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만큼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는 연설에서 이 후보를 향한 동반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였다. 송 후보는 세대교체론과 함께 고흥 출신임을 들어 '호남 적자론'을 폈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지만 청송밭고 경제적으로는 낙후됐던 것을 바꾸겠다"며 "중앙정치에서 호남을 마음대로 깔질하는, 대사회하는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이해찬 대세론'을 겨냥, "(2002년 대선후보 경선당시) 광주는 이인제 대세론을 따르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며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는 '호남의 아들'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제 당대표' 슬로건을 연신 강조하며 호남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나를) 크게 써주셨다"며 "당내 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입법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이 대선 안 된다"며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상황을 살피되, 황소의 우직함으로 개혁의 발을 갈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남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내세웠던 '원팀' (One Team) 메시지를 또 한 번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제도, 통합도,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철같은 단결"이라며 "당대표가 안 된다고 해도 적폐청산과 당 현대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30년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총리의 중책을 맡았다. 정치인생의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고락을 함께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대표 후보에 이어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기호순)들도 연단에 올라 2020년 총선 압도적 승리, 호남 경제 살리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 등을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김해영 후보는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박주민 후보는 "평화정당, 미래정당, 열린 국회를 이끄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려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해찬(왼쪽부터)·김진표·송영길 차기 대표 후보 등이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혔다. 이어 설훈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다 정리되지 않았다. 최소한 발표명령을 한 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고, 박광온 후보는 "땅끝 해남이 낳고 광주가 키워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자신을 내세웠다.

충남 산시시장인 황명선 후보는 "지방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자치분권의 대변인"이라고, 박정 후보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성공한 CEO로서 일자리 창

출의 답을 알고 있다"고 각각 강조했다.

남인순 후보는 "힘지 송파에서 김을 등을 꺾은 돌파력으로 민생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고, 유승희 후보는 "차기 지도부의 중량감을 위해서라도 3년 의원인 나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휴일인 5일 충청 지역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3명의 후보들은 이날 오후 충남도당 대의원대회에 이어 대전·세종시당 대의원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합동연설을

했다.

송 후보는 충청권에서도 세대교체론을 역설했으며, 충남도당 대의원대회 참석에 앞서 새만금 현장을 찾아 국회 차원의 새만금 지원대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제 당대표론'을 거듭 부각하며 충청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충청권이 지역적 기반인 이 후보는 지난 합동연설에서 줄곧 강조해온 '원팀' 메시지를 앞세워 이른바 '이해찬 우세론' 확산에 나섰다. /황애란 기자

정기브리핑

"근로시간 위반 징역형 처벌 안돼"

김동철,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8,350원) 고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벌금액도 낮추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일 최저임금 위반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대신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액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해 50~300인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민주평화당, 새 지도부 출범

'지지율·협치' 등 난제 산적

민주평화당 새 지도부가 5일 출범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정동영 의원을 새 사령탑으로 뽑았다. 최고위원에는 최경환·유성엽·민영삼·허영 후보 등이 선출됐다.

평화당이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꾸린 지도부는 출항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마주해야 한다.

일단 지지율을 끌어올려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지도부에 주어진 최우선 당면과제로 꼽힌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화당은 1~3%대의 지지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 패배를 거머쥔 부각된 당내 분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기반강화를 위해 하두로 내세운 '협치' 국면에서 관계설정 당의 존립을



최경환, 유성엽, 민영삼, 허영

가를 중요한 숙제다.

더욱이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정의당과 꾸린 원내교섭단체마저도 깨진 만큼 새 지도부로서 앞으로의 당 노선은 물론 원내 협상전략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꺼내 든 협치

내각 구상에 대한 평화당의 명확한 입장을 하루빨리 정하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여권의 원칙없는 정략적 협치에는 선을 그어야겠지만 원내 협상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은 잃지 않아야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은 최근 보성군 용치면 휴양림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지지자 모임인 '황사랑'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황주홍, '지역현안' 챙기기 분주

보성서 활동보고회... "주민 생활민원 직접 챙기겠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최근 보성군 용치면 일립산 휴양림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지지자 모임인 '황사랑'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농·수·축 산업과 관련해 불편한 민원, 개선해야 할 제도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를 찾아달라"며 "앞으로 지역 고충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주민 나상균씨

(72)는 "보성군 득량면 근머리-면사무소간 지방도 여건이 좋지 않아 사고발생이 잦다"며 "해당구간을 전남도 등 관계 기관에 위험구간 개선사업 대상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해완씨(56)는 "지역농산물 수출 등을 위해 농산물 집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정치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시켜겠다"고 약속했다. /김근중 기자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송갑석·서삼석 송 "2년 후 총선 승리" ...서 "민생 살피는데 주력"

더불어민주당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에 송갑석·서삼석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정기 대의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460여명이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결과, 단독 입후보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선임됐다.

송 신임 위원장은 공약으로 당원 조직 강화, 예산결산위원회 분기별 정기감사 시행, 당정협의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송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2년 전 오만하고 무능했다. 8개 지역구 중 1석도 광주시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처참한 패배를 겪었다"며 "철저부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원들이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동반·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8개 지역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며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기필코 2년 뒤에는 8개 지역구 의석을 찾아오는 최종 목표를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의견이 살아있고 그 의견에 의해 운영되는 광주시당, 공지를 갖고 당원이 민주당의 심장의 자부



송갑석, 서삼석

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는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이 도당위원장으로 뽑혔다.

서 신임 위원장도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들떠 있을 여유가 없다"며 "물가상승과 청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때 도당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민생을 살피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당원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도민·당원들의 삶을 더 보고 더 살피는 도당, 소금처럼 변함없이 당원의 심부름을 하는 도당 위원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손학규 8일 '9·2 전당대회' 출마

바른미래 당권경쟁 후끈... '안심' 최대 변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 위원장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9·2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고 오는 8일 당권 도전의사를 밝혔다.

손 전 위원장측 관계자는 5일 "손 전 위원장이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전당대회 출마의사를 밝히는데 이어 전당대회 후보등록 첫날인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도전을 결심한 배경과 포부 등을 알릴 계획이다.

손 전 위원장은 6·13지방선거 참패 후당을 재건하고 야권발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륜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내 인사들의 설득에 출마결



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만 70세로, 다른 당권주자에 비해 많은 나이가 약점으로 꼽혔지만, 동갑인 김진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권도전 등으로 부담을 덜었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손 전 위원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국정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고, 호남 폭염현장 방문 등의 행보로 당권도전을 시사해왔다. /연합뉴스